보 도 자 료

보도일시	'18.5.16.(수) 16:30	배포일시	'18.5.15(화) 10:30
	정책개발부 임창현 과장, 김유미 사무관(02-397-1350, 1349)		
국토교통부	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배성호, 김광림 서기관(044-201-3258, 4095)		
산업통상자원부	뿌리산업팀 김정기 팀장, 이예원 사무관(044-203-4255, 4256)		
중소벤처기업부	창업정책총괄과 조희수과장, 이종우 서기관(042-481-1681, 1682) 벤처혁신정책과 최원영과장, 김민지 사무관(042-481-4383, 4494)		

일자리위원회,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본격 시동

- 이목희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주재 제6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-

- 소셜벤처·혁신창업활성화, 국토교통,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등 논의 -

□ **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**는 **5월 16일** 15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**제6차 일자리위원회** 회의를 **개최**하고 소셜벤처·혁신창업, 국토교통, 뿌리산업 등 **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·의결***했다.

* 1.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/ 2. 일자리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/ 3.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/ 4.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

○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4일 **이목희 부위원장**이 취임한 이후 **처음 개최**된 회의로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의 장래 희망이 될 수 있는 **창업** 분야, 취업자 비중이 높은 **국토교통** 분야와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**뿌리 산업**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.

* 건설·운수·부동산업 등 국토교통 산업 종사자는 40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5.4%('17)

○ 한편, 5월 16일은 일자리위원회 **출범 1주년***으로 지난 1년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확립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바탕으로 앞으로 **민간 분야**의 **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**에 대해 위원들 간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

* 「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 시행 : '17.5.16

□ **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**은 모두발언을 통해

○ "오늘은 일자리위원회가 **발족한 지 1년**이 되는 날로 그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확립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, 일자리 질 개선 등 **소기의 성과**도 있었지만 고용 없는 성장 구조, 산업 구조조정과 인구 구조적 요인 등으로 여전히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고 고용지표 등 **가시적인 성과는 미흡**하다"면서 "청년실업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일자리 **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**가 필요하다."라고 강조했다.

○ 또한, 앞으로의 **일자리 정책 추진방향**과 관련하여 "고용탄력성이 높은 **중소기업** 지원 확대와 **IT·벤처 창업** 활성화,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, **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** 등을 중점 추진할 것"이라면서 "**올해 4/4분기**부터는 국민들께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**평가**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."라고 말했다.

○ 아울러 "이번 **6차 회의** 안건은 창업과 중소기업 등 **민간일자리 확충**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업 하에 신속히 대책을 만든 것"으로 "앞으로도 **일자리위원회**가 **중심**이 되어 **절박한 심정**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**과감하고 창의적**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□ 이번 6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(중소벤처기업부)

○ **소셜벤처*를 활성화**하기 위해 **▲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평가체계 구축, ▲특화지원, ▲ 허브(HUB) 구축** 등을 추진한다.

* 혁신적 기술·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를 해결하는 혁신기업

○ **첫 번째**로, 소셜벤처 **판별 지침(가이드라인)**을 마련하고, **가치평가 체계**를 구축한다.

-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**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**을 마련하고, 가이드라인을 **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적용**하도록 한다.

* ①유연한 판별가이드라인 제시 → ②임팩트투자, 은행, 공공기관 등 기관별 수정·보완 → ③투자심사, 평가 등 자체적으로 활용

-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 **혁신성·성장성이 종합고려된 가치평가모형**도 개발한다.

○ **두 번째**로, **청년 소셜벤처 허브(HUB)를 구축**한다.

- ‘헤이그라운드’*, ‘소셜캠퍼스 온(溫)’**이 위치한 서울 성동구 **성수동 일대를 소셜벤처 밸리로 육성**하고,

* 소셜벤처기업, 임팩트투자사 등 59개사 입주, 비영리사단법인 루트임팩트 운영
**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벤처 초기창업팀 70여개 입주, 전국 6개소 운영중

- 5개 내외의 전국 **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 허브**도 함께 구축한다.

○ **세 번째**로, **창업사업화 및 투자 등 특화 지원**을 확대한다.

- 우수 청년소셜벤처에 **1억원까지 창업사업화 비용을 지원**(연 100개)하고, **1,200억원 규모의 ‘소셜 임팩트투자 펀드’**도 조성한다.

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(중소벤처기업부)

○ **전국적인 혁신창업 붐을 조성**하기 위해 **▲국민 관심과 참여 촉진, ▲성공사례 창출, ▲지역 확산** 등을 추진한다.

○ **첫 번째**로, **국민적 관심과 참여**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정부 주도의 사업설계·운영에서 탈피하고 **민간 제안형 창업지원 사업***을 도입하고,

* 창업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 하의상달(Bottom-up) 방식으로 추진

- 서바이벌 **오디션 방식의 TV방송 및 파격적인 투자지원**을 병행하는 **국민참여형 글로벌 창업경진대회**도 개최한다.

○ **두 번째**로, **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**를 창출하기 위해 **유니콘 기업* 육성 프로젝트를 도입**한다.

*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, 전세계 236개사, 한국 3개사

- **유니콘 후보기업 100여개사를 발굴**하고, **투자·자금을 집중지원**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.

- 또한, 성공가능성이 높은 **고급 기술·인재 창업 촉진**을 위해 **'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'**을 선정한다.

○ **세 번째**로, **창업 붐의 지역확산**을 위해 창업가 등 지역 혁신주체들이 교류·협업하는 **SW 중심의 커뮤니티형 '창업마을'**을 조성한다.

- 기술·인력 등 혁신자원의 지속적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**유휴시설 리모델링** 등을 통해 **창업공간, 공공주택, 문화·복지공간 등이 복합된 공간**을 조성하여 **구성원간 활발한 네트워킹**을 유도한다.

- 창업마을 입주기업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**창업사업화 자금, R&D, 판로지원 등을 종합 지원**할 계획이다

③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(국토교통부)

○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▲지역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통한 **일자리 기반** 조성, ▲전통적인 국토교통산업의 **양질의 일자리 창출,** ▲고부가가치 **미래 新산업 육성**을 추진한다.

○ 주거공간, 도시, 공기업, SOC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**다양한 유형의 창업공간**을 마련하고,

* ① 창업지원시설+주거 연계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(3천호)
② 국민임대·행복주택 단지내 희망상가(430호)를 청년·소상공인 등에 공급
③ LH(스마트시티), 교통안전공단(자율차) 등 공공기관의 신산업 창업공간(555개) 제공
④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몰(41호)·졸음쉼터 푸트트럭(37대), 철도역·공항 청년매장(22호)

- 도시, 주택, 산업단지와 같은 **우리의 삶터**를 중심으로 **창업과 취업**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**기반**을 조성한다.

* ① 도시재생과정의 창업지원, 노후건축물 개량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(4,550개)
② 공공임대주택(100만호) 생활서비스,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(9천개 이상)
③ 산업단지 내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센터 설치('21년까지 3개소 목표)

○ 전통적인 국토교통산업에서 **양질의 일자리**를 창출하고, 경쟁력 있는 **인력양성과 취업매칭**을 지원하는 한편

* ①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도제훈련, 해외건설 OJT 및 공기업 해외인턴십 확대
② 주요·취약 시설물(6.9만개) 공무원→민간자격자 점검으로 전환
③ 항공조종사 선선발·후교육(연 200명), 항공정비인력 양성(4,000명) 및 채용연계

- 건설·버스·택배 등 분야별 근로환경을 개선하고,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.

* ① 건설분야 기능인 등급제, 전자적 경력관리, 운수업 안전운전 환경 조성 등 추진
② 공공기관 신규 채용(13,300개) 및 일자리 나누기(2,400개)

○ **스마트시티, 자율주행차, 드론, 제로에너지 빌딩** 등 유망 新산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**인큐베이팅과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**을 추진한다.

④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(산업통상자원부)

○ 뿌리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**글로벌 중견기업**으로 육성하고, **신규 고용 창출을 유도**한다.

- 국내 제조업 일자리의 13%를 차지하는 **뿌리산업 활성화**를 위해 **R&D, 마케팅 지원*** 등을 통해 **'글로벌 뿌리기업'**을 육성한다.

* ①글로벌 진출 매뉴얼 개발, ②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, ③기술마케팅 지원
* 뿌리기업 R&D 사업 기획, 예비타당성 심사 추진('18.下, 5년간 1,500억원 규모)

- **업종별 상생협의체**를 **강화·활성화**(반도체·자동차 등, 공정위 참여)하여 **납품단가 인상, 대금지급 감독** 등 **대기업과의 상생협력**을 **확산**한다.

○ **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로환경 조성**을 통해 **청년선호 일자리**로 전환한다.

- 뿌리기업의 **자동화 설비 리스**에 대한 **자본재 공제조합 보증제도***를 **신설**하고, 업종별 현안을 해결하는 **뿌리공정 스마트화 시범사업****을 추진한다.

* '18년 시범사업 실시, 350억원 규모 운용, 약 350건 지원
** 주조업종 예시 : (현안) 유해물질 발생 규제 → (공정스마트화) 유해물질 예측→관리시스템

- **뿌리산업특화단지**를 중심으로 **근로환경을 개선***하고, **'뿌리산업 선도단지'를 선정**하여('18.下) 공동활용시설 등을 집중 지원한다.

*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 확대 : (기존) 생산관련설비만 지원 → (확대) 편의시설(식당, 주차장 등) 및 복지 개선(근로환경 진단 등)까지 지원 확대

○ **연령대별 맞춤형** 일자리 사업연계를 통해 **미스매치를 해소**한다.

-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무환경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**'일하기 좋은 뿌리기업'** 지정·지원*을 확대한다.

* ('17년) 32개사 → ('22년) 100개사
* 뿌리기업 R&D, '월드클래스' 신청시 우대, 홍보 강화 등 인센티브 확대

- **'뿌리산업진흥센터'**에서 중장년층 대상 **일자리 일괄(One-Stop) 종합 지원**(직무교육 안내→교육과정 관리→취업매칭 등)**을 강화**한다.

* 고용부 지원 프로그램(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)을 통한 중장년 타겟 직업능력 교육 과정 개설 → 뿌리기업이 교육장을 방문하여 채용면접 및 멘토링 등을 실시

붙임 1 제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개요

□ 일시 : ‘18. 5. 16.(수) 15:00 ~ 16:30

□ 장소 :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

□ 참석

○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(주재)

○ **(당연직, 15명)** 11개 중앙부처 장*, 일자리수석, 한국개발연구원장, 한국노동연구원장,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

* 기재·교육·과기정통·행안·산업·복지·고용·여가·중기부 장관, 국조실장, 공정위원장

○ **(위촉직, 12명)** 노사단체 대표 6명, 민간전문가 6명

○ **(안건 관련, 1명)** 국토교통부장관

※ 배석 : 관계부처 실국장 등

□ 의결 안건

①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(중기부)

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(중기부)

③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(국토부)

④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(산업부)

붙임 2 **안건별 주요 내용**

Ⅰ.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(중기부)

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('17.10.18) 발표 이후, **소셜벤처**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, **정책 지원 기반은 미흡**

⇒ 이에, 소셜벤처기업가, 투자사 등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(총 7회) 등을 거쳐 마련된 「**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**」을 보고드림

1. 추진배경

○ 소셜벤처는 **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**하는 **기업**으로 인식되며, **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와 성장성도 높은 편***

* 소셜벤처(대표 20개사) **청년비중** : 대표자 75%(15명), 직원 81% (469명중 381명)
평균 매출액(백만원) : ('15) 406 → ('16) 684.7 (68.6% 증가)

- 최근 국내 **성공기업 사례**①와 **민간 차원의 활성화 노력**②이 **확산**

① 모어댄(폐자동차시트 재활용 제품), 마리몬드(위안부 컨텐츠 제품), 에누마(장애아동 교육용SW)
② 헤이그라운드(입주공간, 네트워킹 등), 대기업(SK, 현대차, LG 등)에서 창업자금, 인큐베이팅 등 지원

○ 그러나, 민간의 자생적 움직임을 **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**시킬 수 있는 **정책·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수준**

- 소셜벤처 **개념이 불명확**하여 **정책 지원이 어렵고, 경제성 위주의 기업평가**로 사회적가치도 함께 창출하는 **소셜벤처는 저평가**

- 이에 따라, **투자·보증** 등 **자금조달이 어렵고, 창업·R&D 지원** 등 **기존 제도의 활용도 쉽지 않은 편**

*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규모 : (한국, '15년) 540억원 (세계, '17년) 26조원

2. 중점 추진과제

①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평가체계 확산

○ **소셜벤처 인식제고 및 정책대상화**를 위해 **개념 명확화 및 사회적 합의**를 통한 **유연한 판별 가이드라인(Guide line) 제시**('18.하)

* 인증제는 기업활동의 창의성 및 자율성을 저해하고 해외(미국, 영국 등) 역시 획일적 기준을 도입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, 민간주도의 가이드라인 마련

○ **소셜벤처가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**를 위해 **경제성**과 **사회성**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**가치평가모형 개발**

* (현행) 경제적성과(재무제표상 지표 등) → (개선) 경제적성과 + 사회적성과

② 청년 소셜벤처 HUB 구축

○ **(수도권) 성수동 일대**에 **지원 역량을 집중·연계**하여, **소셜벤처 밸리 조성**

- 기존 지원기관과 협업체를 구축하여 **지원기관간 역할분담, 입주기업 대상 애로해결, 창업공간, 시제품 제작** 등 실시
- **전문지원기관을 선정**하여 투자기관 관계자와 정기적 교류 기회(IR·피칭), 기업간 네트워킹, 기업운영 관련 자문·컨설팅, SNS홍보 등 제공

○ **(지방)** 지역 수요 및 해당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높은 **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공모(5개 내외)하고 지역 혁신기관**과 협업

③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

○ 예비 및 초기창업자(1년미만) 대상 창업비용(팀당 최대 5천만원) 및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**'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'**에 **소셜벤처 포함 및 지원 확대**

○ **혁신성이 우수**한 **청년 소셜벤처**에 대해 민간의 **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과 연계, 창업성공률 제고 및 글로벌 소셜벤처** 육성

-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바우처형태 지원(오픈바우처)
- 일상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혁신형 소셜벤처는 성실실패시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정책자금(성공불융자) 최대 2천만원 지원
- 대기업·공기업 등 민간과 우수 소셜벤처 정보 공유, 기업지원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* 연계매칭,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개선 등 협력 강화

* 분야별 연계: (친환경) LG전자·화학, (제조기술) 현대차그룹, (도시재생·주거) LH, (물관련) K-Water

④ 소셜벤처 성장 촉진

○ **(투자) 1,200억원 규모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*** 조성, **소셜벤처에 중점투자**(50% 이상)하는 **TIPS 운영사 선발**하여 성장지원 강화

* (중기부)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 1천억원, (금융위) 한국성장금융 임팩트펀드 200억원

○ **(보증·융자) 5년간 5천억원** 규모 **보증** 지원(기보), 정책자금 확대('18, 350억원)

○ **(R&D)** 개발대상 기술의 **사업화 성공률 제고**하는 R&D **기획 지원**을 **실시**하고, 사회가치(건강·환경·안전 등)를 **증진**시키는 **제품개발사업 시행**

3. 기대효과 : 2,500여개의 일자리(청년일자리 2,000여개) 창출('19년)

* 360개 창업 및 250개 성장지원(소셜벤처 연평균 고용인원 4.1명, 청년고용비중 81%)

Ⅱ.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 (중기부)

1. 추진배경

□ 문재인 정부 출범 후, **'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'**('17.11월), **'청년창업 활성화 방안'**('18.3월) 등 **다양한 정책** 마련·추진 중

* '17년 추경으로 모태펀드에 8,000억원 출자('18.3월 1.8조원 조성)

○ 최근 창업 관련 **주요지표가 개선**되고 **사회적 관심이 증가**하는 등 **창업 분위기가 호전**

* 벤처투자(억원) : ('17.1/4분기) 4,054 → ('18.1/4분기) 6,348 (56.6% 증)
* '창업' 관련 기사 건수(언론진흥재단 데이터 분석) : ('17.1Q) 4,145→('17.3Q) 4,536→(18.1Q) 5,124

□ 향후 **혁신창업 열기가 지속·확산**되도록, ①**국민 관심과 참여 촉진**, ②**창업 성공사례 창출**, ③**지역 창업생태계 기반조성**을 적극 추진

2. 주요내용

1 국민 관심과 참여 촉진

○ **'민간 제안형 창업 프로그램' 도입** ('19. 신설 추진)

- 기존 **정부 주도 방식에서 탈피, 민간 창업지원기관의 제안**(Bottom-up 방식)을 토대로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**사업 도입**

* (민간기관) 창업지원사업계획 수립·제안 → (민간전문가) 타당성검토 → (정부) 사업비 지원

○ 국내외 **성공기업인 등의 경험, 성공스토리** 등을 전국민이 공유 할 수 있도록 **온라인을 통해 제공**(TED 방식)

○ **국민 참여형 '글로벌 창업경진대회' 개최** ('18.5월부터 전국 단위 실시)

- **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** 및 **파격적 투자지원**(500억원 펀드 조성) 등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끄는 **스타창업자 발굴**

* 창업 아이템에 대해 일반국민의 투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크라우드 펀딩 연계

- **해외 유망 스타트업이 참여**하고, 글로벌 VC 평가단 운영, 네트워킹 파티 등을 통해 세계인이 관심 갖는 **글로벌 행사로 육성**

○ **일반국민의 투자참여 확대를 위한 '민간 엔젤모펀드' 신설** ('19.)

- 민간과 모태펀드가 출자(50:50)하여 **모펀드를 결성**하고, 개인투자조합이 투자 제안시 심사 후 **수시로 소액출자**하는 방식 도입

*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기존 엔젤모펀드('15~'17, 358억원 조성)와 상호 경쟁.보완

2 창업 성공사례 창출 (Scale-up)

○ **'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젝트' 도입** ('18.)

- 모태펀드 투자기업('05~'17, 4,580개사), TIPS 기업('13~'17, 333개사) 등을 대상으로 **유망기업 Pool 구성** → 전문가 검증 후 **후보기업 선별**(100개)
- **글로벌 상위 VC를 통해 투자·네트워킹을 지원**하고, 해외현지법인 대상 **자금지원 프로그램*** 신설 등으로 **글로벌 스타벤처 육성**

* 현지법인의 해외 금융기관 자금대출에 대한 보증(Standby L/C) 도입(기보)

○ **대학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**

- 대학이 보유한 혁신기술 기반 **'실험실 창업'** 촉진을 위해 **'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'** 선정·지원('18. 신규 5개)

* 교육부(학사제도 개편, 창업장학금), 과기정통부(후속 R&D), 중기부(창업공간, 자금) 등

- **과기특성화대**의 **창업맞춤형 교육** 확대(전담교원·참여학생 등)

* (예시: KAIST 창업대학원) 현장실습, 인턴십 등 창업중심 융합교육(16개 교과)

3 지역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

○ **지역 혁신창업 클러스터(창업마을) 조성** ('18.)

- 지역 혁신주체(창업자, 투자자, 대학 등)들이 열린 광장에서 **교류·협업**(SW)**하는 커뮤니티**(21세기형 산업단지)로서 **'창업마을' 조성 추진**

*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방식 보완

** ('18) 대전에 시범조성(추경예산 60억원 활용) → 주요 광역지자체로 확대

○ **지역 투자 자금 확충** 및 **투자 네트워크 강화**

- **모태 자펀드** 대상으로 지역 투자에 대한 **인센티브 도입**('18)

* (결성) 지방기업 투자시 가점부여 / (회수) 지방투자 손실 발생시 우선손실 충당

- 지방 중기청과 엔젤·VC협회 합동으로 **'지역 투자마트'** 개최('18. 20회)

⇒ **(기대효과)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창업붐 조성**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통한 **성공사례 육성**으로 **양질의 일자리 창출**

* 혁신창업기업 1개당 평균 2.8개의 일자리(정규직) 창출 [창업기업실태조사 '17]

Ⅲ.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(국토부)

◈ 일자리 5년 로드맵('17.10), 청년 일자리 대책('18.3)과 연계하여 주택·도시·건설·교통 등 **국토교통 정책수단**을 활용한 **일자리 대책** 마련

※ 국토교통 산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15.4%인 408만명('17)
스마트시티, 드론, 자율차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잠재력도 충분

1. 「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」 과제구성

3대 추진방안	추진과제
1. 일자리기반 조성	① 마음껏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 ② 우리의 지역과 삶터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조성
2. 좋은 일자리 창출	③ 국토·교통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④ 국토교통 산업의 근로여건 개선하여 서비스 질 향상
3. 新산업 육성	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과 인재를 육성

2. 추진과제별 주요내용

① 마음껏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공간 마련

○ 분양대상 **임대주택** 단지 내 **상가**의 60~80%를 임대로 전환하여 **청년·사회적기업** 등에 시세 **50~80%**로 저렴하게 임대(430호, ~'22)

○ 창업지원시설+주거 결합된 **소호형 주거클러스터** 공급(3천호, ~'22)

○ **LH**(스마트시티), **교통안전공단**(자율차) 등 공공기관별로 혁신산업에 대한 창업공간(555개)과 기술지원을 통해 **스타트업 창업 지원**

○ **고속도로** 졸음쉼터·휴게소, **철도·공항** 내 매장을 **청년 창업공간**(100개)으로 재구성, **임대료 면제·컨설팅 등** 지원대책과 함께 공급

② 우리의 삶터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조성

○ 도시재생 과정에서 **예비사회적기업** 지정, **모태펀드 투자** 등 창업지원 및 노후 건축물 개량과 소규모 재생사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(4,550개)

○ 산업단지내 창업기업이 부담없이 입주할 수 있는 **혁신성장센터**를 **설치**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집중 제공('21년까지 3개소 목표)

○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대상의 **도서관 등 생활서비스**와 **어린이집 등 사회복지 서비스**를 활성화하여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(9,377개)

③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도 지원

○ 건설특성화고 학생 **현장맞춤형 훈련***(300명), **해외인턴십 확대**(1,000명) 등 업계매칭을 강화하고, **고용우수기업** 시공능력평가 우대 등 추진

* 채용 건설사를 사전 모집 후 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에서 기능장 파견 훈련

○ 항공기 **조종사**의 **先선발 後교육**체계 도입(매년 200명), 항공기 증가(5년간 138대)에 대비한 **항공정비 인력**의 **양성 및 취업**연계 추진

○ SOC 확충, 서비스 개선에 따른 **공공기관 일자리 창출**(13,300개)과 시간선택제·탄력정원제 등을 활용한 **일자리나누기** 확대(2,400개)

④ 국토교통 산업의 근로여건 개선

○ 건설기능인 **등급제**와 **전자적 경력관리·임금지급***, **사회보험 가입 범위 확대**** 등 복지향상을 통해 **건설근로자**의 근로 안정성 제고

* 발주자가 건설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 / ** 가입대상 최소근무일 20→8일

○ 광역·고속버스 등 **장시간 운행버스**의 휴게시설 확충 등 **안전 제고**, 택배량 급증을 감안한 택배차량 신규허가(연 5,300대) 등 **일자리 질** 향상

○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**정규직 전환**도 차질없이 추진

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과 인재를 육성

○ **스마트시티, 자율주행차, 드론, 제로에너지 빌딩**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**인큐베이팅과 인력양성**(14,000명, ~'22) 추진

< **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기대효과**('18~'22) >

4,700개 창업공간 조성, **10만개 일자리** 창출, **33,000명 혁신인재** 양성

* SOC 재정투입을 통해 발생하는 건설일자리 등은 제외

3. 이행방안

○ 로드맵 추진상황을 **정기적으로 점검**하는 한편, **청년배심원단** 운영, 관계부처 **협업 강화***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로드맵을 **개선·보완**

* 창업공간의 경우 '전국 창업공간 DB'(중기부, '19~)와 연계, 창업가 이용지원

Ⅳ.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(산업부)

◇ 일자리委 주력산업 분과위 안건 발굴('18.1.31)이후 민간전문가 의견수렴, 일자리委 전문위원회 논의(4.27),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

※ 뿌리산업은 금속가공기술을 활용하는 주조·금형·소성가공·용접·표면처리·열처리 등 6대 업종 지칭 → 주력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산업(53만명, 제조업의 13%)

1. 추진배경

□ 주로 대기업 2~4차 벤더*가 대부분인 뿌리산업은 자동차, 조선 등 주력산업 둔화에 따른 동반 부진으로 **매출정체, 일자리창출 여력 감소**

* 자동차 차체(소성가공), 휴대폰케이스(금형), 반도체부식방지(도금), 조선(선박용접) 등

○ 먼지, 악취, 소음 등 **3D 이미지***, **청년의 취업기피, 미숙련 중장년층의 사전준비 없는 대량유입 및 조기퇴직** 등 **일자리 미스매치** 발생

* 주조는 모래·금속 가공시 먼지 발생 + 고온 분해시 악취(벤젠 등) 발생

□ 뿌리기업의 **기술개발, 공정 업그레이드**를 통해 **신규 일자리 창출** 유도 + **근로환경 개선**을 통해 청년·중장년층 유입을 촉진하여 **빈일자리 채우기**

* 취업계수 : (제조업평균) 2.2 vs (뿌리산업) 3.1 / 취업유발계수 : (제조업평균) 7.8 vs (뿌리산업) 9.2

2. 주요내용

1 기업 성장지원 ⇨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고용 창출 유도

○ (**글로벌 뿌리기업 육성**) 국내는 경쟁심화·지속적 원가절감 요구 → 뿌리기업별 수준에 맞는 **단계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요납품** 기업 확대

① (**1단계: 매뉴얼 개발**) 글로벌 납품자격을 획득한 선행기업들*의 경험을 **매뉴얼화**, 희망기업 대상으로 **보급·확산**

* (사례) 성우하이텍은 BMW에 자동차 센터필러 납품 → 연1,000억원 매출, 신규고용 155명

② (**2단계: 기술개발**) 글로벌 수요기업에 납품이 가능한 **기술수준(인증)** 확보* 지원

* 수요기업 차별화 : (국내기업) 신뢰성 평가데이터 확보, (해외기업) 기술적 간극 해소

③ (**3단계: 마케팅**) 기술개발 후 글로벌 수요기업 대상 **기술마케팅** 지원

* 사례 : 코트라 KAP(Korea Autoparts Plaza), 북미 부품소재수출상담회 사업 등 활용

④ (**4단계: 획득지원**) **심사평가비** 등 납품자격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⇨ 뿌리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**R&D 사업 기획, 예비타당성심사 신청** ('18.下, 5년간 1,500억원 수준)

○ (**상생모델 확산**) **업종별 상생협의체***를 강화·활성화(반도체·자동차 등, 공정위 참여), **납품단가 인상, 대금지급 감독** 등을 통해 고용여력 창출

* 주물조합 사례 : (조합) 납품단가 인상요구 및 조업중단 예고(2.22) → (정부) 자동차 상생협의체(현대차 등 참여)에 동향 전달(3.13) → (조합) 수요기업과 협상진전, 중단 철회(4.16)

2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로환경 조성 ⇨ 청년선호 일자리 전환

○ (**공정혁신**) 現뿌리기업 자동화·스마트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*하고, **자동화설비 구매방식 다양화, 문제해결형 스마트화** 사업 등 신규추진

*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(중기부, '18년 596억원) 등 적극 활용

① 뿌리기업의 **자동화 설비 리스 계약**에 대한 **자본재 공제조합 보증제도*** 신설('18년 시범사업 실시, 350억원 규모 운용, 약 350건 지원)

* 금리인하 및 신용도 낮은 기업에도 보증 제공(동산담보부 지급보증)

② 업종별 현안을 해결하는 **뿌리공정 스마트화 시범사업 실시**

* 주조업종 예시 : (현안) 유해물질 발생 규제 → (공정스마트화) 유해물질 예측·관리 시스템

○ (**특화단지 환경개선**) 뿌리기업 집적지인 뿌리산업특화단지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**이직률 완화 및 긍정적 이미지 조성**

① 現 생산설비만 지원하고 있는 **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**(공동활용시설·혁신활동지원으로 구성)을 **편의시설 및 복지개선 지원**까지 확대

> Enter **공동활용시설** : (기존)생산설비 → (확대)**편의시설 포함**(식당, 주차장, 휴게시설 등)
> **·혁신활동** : 유연근무제, 근로조건 자율개선 등 **공동 근로환경 진단** 포함

② 旣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 중 1개 단지를 **'뿌리산업 선도단지'**로 선정*('18.下), **공동활용시설 구축 등 종합지원**

* 후보단지 : 인천 친환경표면처리센터, 반월 도금단지, 울산 매곡 뿌리산업특화단지 등

3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연계 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

○ (**청년층**)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무환경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**'일하기 좋은 뿌리기업'** 지정·지원 확대('17년 32→ '22년 100개사)*

* 뿌리기술 R&D 참여시 가점 부여 및 월드클래스 기업 신청시 인센티브 제공 등

○ (**중장년층**) **뿌리산업진흥센터**에서 중장년층 대상 **일자리 One-Stop 종합 지원**(직무교육 안내 → 교육과정 관리 → 취업매칭 등)*

* 고용부 지원 프로그램(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)을 통한 중장년 타겟 직업능력 교육과정 개설 → 뿌리기업이 교육장을 방문하여 채용면접 및 멘토링 등을 실시

◇ 향후 5년간 특화단지 근로환경 개선,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확대, 중장년 취업지원 등을 통해 **'22년까지 8,800여명 신규고용 창출**

* 뿌리산업 종사자수 : ('16년) 53만 4,819명 → ('22년) 54만 3,641명

붙임 3 사후 브리핑 계획

□ 일시/장소 : ’18. 5. 16.(수) 16:30 /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

□ 참석자

○ (일자리위원회) **일자리기획단장**, 총괄기획관

○ (부처) 중기부 **창업벤처혁신실장**(석종훈), 국토부 **기획조정실장**(김재정), 산업부 **소재부품산업정책관**(강경성)

□ 브리핑 사항

○ 제6차 일자리위원회 **주요 논의결과 설명** (일자리기획단장)

※ 별도 자료 배포 없음

□ 진행 순서 (총 30분)

시 간		내 용	비 고
16:30~16:40	10′	주요 논의결과 설명	일자리기획단장
16:40~17:00	20′	기자단 질의·응답	진행 : 홍보팀장

< 좌석 배치도 >

산업부 강경성 소재부품산업정책관	국토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	일자리위원회 기획단장	중기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	일자리 총괄기획관

(사회)
일자리기획단
홍보팀장

기 자 석